

초등교사의 ADHD 관련 지식, 태도, 스트레스 수준 및 통합교육의지에 대한 인식

최연숙
배화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Assessment of Elementary Teachers' Knowledge about ADHD, Attitude, Stress Level and Intention for Inclusion Education

Yeon-Sook Choi

BaeWha Women's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요 약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소아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장애질환으로 초등학교 아동들의 교육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ADHD 증리아동들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는 교사들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의 개선과 교사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DHD 아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227명의 초등교사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나이, 성별, 교직경력, 연수시간 등이 지식, 태도, 스트레스 및 교실에서의 통합교육 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성별은 스트레스에, 연수시간은 ADHD 관련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ADHD 학생의 지도경험, 나이, 성별, 교직경력, 연수시간 등의 요인은 통합교육 의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으로 교사들의 정책적 지원요구사항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통합교육, 초등학교교사, 태도, 지식수준, 피쉬본차트

Abstract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is a relatively common condition of childhood onset and is of significant educational and social concern in elementary school. Investigating the determinants of teachers' attitudes and behavior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is crucial for improving teaching practices and initial teacher education for effective inclusion of ADHD children. Based on two hundred and twenty seven survey responses from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ing experienced in dealing with ADHD students, this paper examines the age, gender, career and training-hours effects on the knowledge, attitude, stress and inclusive education involving ADHD children.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gender influences the level of stress and that the training hours has some impact on the knowledge about ADHD at 5% significance level. However, the number of ADHD children experienced, age, gender, career and training-hours were identified as the non-significant predictors of teaching behavior in relation to ADHD children. As a conclusion, a brief discussion concerning the critical need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s also presented.

Key Words : ADHD, Inclusive Educati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Attitudes, Knowledge Level, Fish-bone Chart

Received 26 March 2017, Revised 26 April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Yeonsook Choi(BaeWha College)
Email: white9879@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이하 ADHD)는 소아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장애 질환으로 아동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장애였으나 최근에는 성인층에서도 장애율이 증가하여 학교, 직장, 가정 등 다양한 환경 하에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로 부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자료에 따르면, ADHD로 추정되어 진료한 인원은 2009년 5만 1000명의 아동에서 2013년 5만 8000명의 아동으로 약 6200명(12.06%)이 증가하여 연평균 2.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미국의 아동대상 조사에 의하면 2003년과 2007년의 경우 4-17세의 아동 중 7.8% and 9.5%가 각각 ADHD로 진단 받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하는데, 2011년의 경우에는 11% 가까이 ADHD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진단받아 그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3.5 백만명 가까운 수의 아동들이 ADHD 증상 완화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2].

이와 같이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ADHD 증상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현장 교사를 위한 ADHD 학생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중재 전략에 관한 교육과정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ADHD 관련 대처방안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ADHD 학생과 일반 학생들을 함께 지도해야 한다는 것은 일선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큰 부담이다. ADHD 학생들은 과잉행동이나 감정조절능력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충동성 문제로 인해 교실에서의 물론 학교 밖에서도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문제해결능력도 부족하여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 그렇지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ADHD 증상을 보이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약물 처방과 함께 교사 주관의 행동치료(behavior therapy)가 필수적인 치료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4]. 교실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에게 또 다른 유형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사는 부모나 가족 이외에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ADHD 학생의 증상을 인지하고 학부모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5]. 따라서 교사의 ADHD 학생들에 대한 태도는 학생지도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ADHD 학생의 교실

내외에서의 학업능력이나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ADHD가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증상이라는 데에 있다. ADHD 자녀 때문에 가정불화를 겪거나 이웃과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또한 ADHD 자녀로 인해 부부간 갈등을 일으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윌리엄 펠햄 박사의 연구[6]에 의하면, 자녀가 8세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ADHD 증상자녀가 있는 가정의 이혼율이 22.7%로 그렇지 않은 부부의 이혼율의 두 배가깝다고 한다.

그렇지만 ADHD 학생에 대한 현직 교사들의 태도나 자기효능감 등에 관한 국내의 실증적 연구는 다소 미진한 형편이다. ADHD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7,8]에서는 교사들 대부분이 ADHD에 대한 지식 정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 태도 역시 다소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주종을 이룬다. ADHD 관련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9,10,11,12]에서도 교사들 대부분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적절한 교육적 중재나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 대부분에서 ADHD 학생을 위한 교사들의 수업변화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연수 및 지원이 시급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DHD 학생들을 경험한 바 있는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ADHD 관련 지식수준, 태도, ADHD 학생에 대한 지도와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통합교육측면에서의 교사들의 변화의 지 등을 살펴보고, 교사들의 연령, 성별, 경력, ADHD 관련 연수시간이 이들 요인에 미치는 영향 정도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ADHD 증상에 대한 교사의 지식수준과 인식

교사의 ADHD 관련 지식과 ADHD 증상 학생에 대한 태도는 유·청소년기 학생의 학습 및 행동지도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의 지도방식은 ADHD 증상학생의 학업수행능력과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ADHD 증상치료 과정에까지 관여하게 되

면 해당학생의 치료에 대한 순응력을 제고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 또한 교사가 ADHD 증상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고 본인의 교실안팎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 ADHD 증상 학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학생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할 뿐만 아니라 교실내의 좌석 배치 및 수업 운영 등의 중재전략 측면에서도 이들을 배려할 여유가 생기게 된다. 특히 ADHD 증상학생을 위한 행동수정 기법이나 지지기법 등은 ADHD 증상학생이 없는 학급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ADHD 증상에 관한 지식과 이해수준이 높은 교사일수록 ADHD 증상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적절한 행태가 학생들의 교내안팎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며[13], ADHD 증상 완화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에도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실제 ADHD 증상 학생들을 교내에서 상당 시간 접하게 되는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상당히 광범위한데 비해 교사의 역량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학부모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협업은 ADHD 증상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ADHD 증상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부정적일 경우 긴밀한 협력관계는 유지하기 어렵다. 교사의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은 ADHD 증상을 가진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밝히기를 꺼려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어 상담이나 약물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어렵게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ADHD 관련 교육이나 연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14,15]. ADHD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이나 연수기회를 갖지 못한 교사들은 해당 분야의 지식수준이 낮고 다양한 중재방법에 대한 유용성 인식이나 활용의도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13]. 예를 들어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8,16]를 참고하면 교사들 대부분이 ADHD에 대한 지식수준이 매우 낮으며 체계적인 연수나 교육도 거의 받은 적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의 경우 18.3% 정도만이 ADHD 관련 연수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6].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11] 대부분의 교사들이 ADHD 관련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적절한 교육적·사회적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DHD 치료에 도움을 주는 처방약에 대한 지식도 부족

하고, 교실 내에서의 ADHD 증상에 대한 적절한 이해부족으로 학령기 ADHD 증상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통합 환경에서는 교사의 ADHD 증상학생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중재전략만이 소기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통합교육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될 때, 충분한 지식이나 중재전략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교사의 경우 ADHD 증상학생들을 배려하는 새로운 교실운영방식의 도입은 매우 부담스러운 과제이다. 특히나 해당업무에 대해 긍정적 생각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업무의 효과성은 저하된다. 따라서 ADHD 증상학생에 대한 초등교사의 긍정적 태도는 통합교실에서의 수업운영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ADHD 증상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도 바림직한 영향을 미친다.

2.2 ADHD 증상학생에 대한 교사 스트레스

ADHD학생은 수업시간 중에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수업진행에도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주 보여주게 된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업적, 정서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이들 ADHD 학생들을 일반학생과 함께 통합하여 교육해야하는 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교사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ADHD 학생은 물론 통합교실에서 함께 공부하는 일반학생 모두의 교육의 질도 훼손될 것이고, 성공적인 통합교육 역시 달성 불가능한 목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ADHD 증상학생을 포함하는 통합교육교실에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통 ADHD 증상을 나타내는 학생들의 9-20% 정도가 학습장애를 보이며, 33%는 불안장애, 25%는 우울증, 그리고 55% 정도는 반항성장애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교실 안팎의 생활 적응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며[17], 이런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ADHD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합학급 교사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요인이 ADHD 증상학생들의 문제 행동과 학부모들의 무관심 또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이라고 한다[8]. 교실환경의 요구가 교사 개인의 역량을 초과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

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ADHD 관련 연수나 교육경험이 별로 없는 교사들은 문제적 행동이 발생하거나 그 원인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18]. 교실내 수업과정에서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은 ADHD 증상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교사의 자기효능감이나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9].

근본적으로 교실 내에서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절대적이므로 ADHD 증상 학생들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와 함께 이들의 학습역량 차이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ADHD 증상 학생의 교실 내 행동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교사 자신의 효능감과 중재방법에 대한 지식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3. 설문항목의 정의와 자료의 수집

3.1 측정 항목의 정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ADHD 증상에 대한 이해도, ADHD학생에 대한 태도와 이들로 인해 받게 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교실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상담·지도해보겠다는 교사의 변화의지 등에 대한 수준 조사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요인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

우선 교사의 ADHD학생에 대한 태도는 ‘교사들의 ADHD 증상학생들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충실한 학교생활 유지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의하며 Nowacek과 Mamlin[20], Ohan et al.[21]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5개 항목을 설문에 포함시켰다. 교사의 지식수준은 ‘ADHD 증상에 대한 이해와 중재와 상담방법에 대한 교사 지식수준’으로 정의하고 Ohan et al.[21]의 연구를 참조하여 4개 설문항목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교사의 ADHD학생에 대한 태도는 ‘교사들의 ADHD 증상학생들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충실한 학교생활 유지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의하며 Nowacek과 Mamlin[20], Ohan et al.[21] 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5개 항목을 설문에 포함시켰다. 스트레스는 ‘교사들이 ADHD 학생들로 인해 느끼게 되는 불안감과 우울함 등과 같은 부정적 마음가짐’으로 정의하고 기존 연구[22,23,24] 결과를 참조하여 4

개 항목을 설문에 포함시켰다. 교실에서의 통합교육의지는 ‘ADHD학생을 위해 교실 내에서 다양한 중재 및 대응 전략을 학습·적용해 보고자 하는 교사의 변화의지’로 정의하고 Nowacek & Mamlin[20], 서화자 외[12] 등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3개 설문항목을 사용하였다.

3.2 설문자료의 수집 및 응답자 구성내역

초등교사들의 ADHD 증상학생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설문항목이 포함된 설문지를 서울 및 경기도의 10개 초등학교에 배포하였다.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두 32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ADHD학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한 교사들의 설문을 제외하고 총 227명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일반현황을 제외한 설문 문항은 5점 척도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설문 응답자의 구성을 보면 여교사가 186명, 남교사가 41명으로 여성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34명, 30대가 97명, 40대가 58명, 그리고 50대 이상이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경력을 보면, 5년 이하가 65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60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50명, 그리고 20년 이상이 5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ADHD 증상 및 중재전략에 대해 교사들이 그동안 받았던 교육 및 연수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고작 11.4시간이며, 그나마 연수나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교사도 121명이나 되어 학교나 교육청의 ADHD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예상한 바와 같이 각 요인별로 설정한 설문항목이 해당 요인으로 묶였고 요인적재치도 모두 0.6 이상을 나타내었다. 각 요인의 고유치도 모두 1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 평가에 사용되는 크로바하 알파값도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0.7을 상회하여 내적일관성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수준, 태도, 통합교육의지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스트레스는 다른 3개 요인에 대해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1> Scale Items, Factor Loading and Reliability

construct	scale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Knowledge Level	I can provide the information concerning ADHD symptoms and intervention techniques to my fellow teachers.	.622	0.86
	Without the help of my fellow teachers, I can effectively teach and lead my students.	.788	
	I know how to intervene and manage even when ADHD student behaves improperly in the classroom.	.760	
	I understand various intervention and counseling techniques for ADHD.	.761	
Attitude	It's natural that I help ADHD students.	.705	0.79
	It is worth while teaching and counsel ADHD students.	.750	
	I expect ADHD students to adapt nicely to the school environment through proper education and counseling.	.802	
	Since ADHD symptoms can be treated like any other illness, ADHD students can maintain the normal school life with proper treatment.	.699	
	With proper guide and counseling, ADHD students can pursuit and enjoy the normal academic activities.	.629	
Stress	I feel confusing and irritating when I teach ADHD students.	.706	0.81
	When I teach or counsel ADHD students, I become restless and worried.	.754	
	I am annoyed by ADHD students in my classroom.	.771	
	I'm stressed out about the problems caused by ADHD student.	.743	
Intention for Inclusive Education	I intend to change and improve my teaching and classroom management techniques for ADHD students.	.798	0.78
	I will continue my efforts to learn knowledge, skill and intervention techniques to teach and counsel ADHD students.	.818	
	Since inclusion education involving ADHD students needs chang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classroom management, I will put more effort into the change.	.692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Knowledge Level	Attitude	Stress	Intention for Inclusive Education
Knowledge Level	1			
Attitude	0.22	1		
Stress	-0.22	-0.19	1	
Intention for Inclusive Education	0.27	0.50	-0.11	1

<Table 3> ANOVA Summary Table(factor = Gender)

	group 1 : male group 2 : female	N	mean	F value (p value)
Knowledge Level	1	41	3.18	1.945 (0.166)
	2	186	2.97	
	total	227	3.01	
Attitude	1	41	4.23	1.31 (0.254)
	2	186	4.10	
	total	227	4.13	
Stress	1	41	2.79	10.71 (0.001)
	2	186	3.23	
	total	227	3.15	
Intention for Inclusive Education	1	41	3.89	.015 (0.91)
	2	186	3.90	
	total	227	3.90	

4. 요인별 집단 간 차이분석

4.1 남·녀 간 차이분석

성별에 따라 초등교사의 응답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참고로 남자는 집단 1, 여자는 집단 2로 구분되어 있다. 남·녀간 차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요인에서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여교사는 남교사에 비해 ADHD 증상학생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부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2 연령대에 따른 차이분석

연령대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집단 1은 20대, 집단 2는 30대, 집단 3은 40대, 그리고 집단 4는 50대 이상을 의미한다.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간 차이분석에서와 같이 스트레스 요인에서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식수준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4> ANOVA Summary Table(factor = Age)

group 1 : under 30 group 2 : 31 - 40 group 3 : 41 - 50 group 4 : over 50		N	mean	F value (p value)
Knowledge Level	1	34	2.84	1.726 (0.163)
	2	97	2.94	
	3	58	3.05	
	4	38	3.27	
Attitude	1	34	4.23	565 (0.638)
	2	97	4.09	
	3	58	4.16	
	4	38	4.06	
Stress	1	34	2.72	4.987 (0.002)
	2	97	3.14	
	3	58	3.33	
	4	38	3.30	
Intention for Inclusive Education	1	34	4.01	.811 (0.489)
	2	97	3.91	
	3	58	3.82	
	4	38	3.88	

4.3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분석

교직경력에 따라 응답결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요약되어 있다.

<Table 5> ANOVA Summary Table(factor = career)

group 1 : under 5 group 2 : 6 - 10 group 3 : 11 - 15 group 4 : over 15		N	mean	F value (p value)
Knowledge Level	1	65	2.82	2.598 (0.050)
	2	60	2.97	
	3	50	3.04	
	4	52	3.26	
Attitude	1	65	4.22	1.531 (0.207)
	2	60	3.98	
	3	50	4.17	
	4	52	4.14	
Stress	1	65	2.81	5.939 (0.001)
	2	60	3.25	
	3	50	3.29	
	4	52	3.33	
Intention for Inclusive Education	1	65	4.01	2.269 (0.081)
	2	60	3.81	
	3	50	3.78	
	4	52	3.98	

교직경력 5년 이하가 집단 1, 5년 초과 10년 이하가 집단 2,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집단 3, 15년 이상이 집단 4로 구분되어 있다.

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수준과 스트레스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수준의 경우 집단 4가 집단 3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요인은 교직경력이 일천한 집단 1이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집단 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인과관계분석

ADHD 학생경험, 연령, 성별, 교직경력, 연수시간 등의 5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ADHD학생을 경험한 초등교사의 지식수준, 태도, 스트레스, 통합교육의지 등의 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모두 4개의 회귀모형을 구축·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인 <Table 6>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지식수준을 종속변수로 도입한 모형에서는 연수시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ADHD 학생경험, 연령, 성별, 경력 등의 4개 변수는 독립변수 계수의 p값이 5%를 초과하여 회귀계수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연수시간의 p값만이 거의 0에 가까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이 회귀모형의 적합도인 R제곱 값은 14.3%이며, 분산분석의 F값은 7.346으로 p값이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성별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 변수는 독립변수 계수의 p값이 5%를 초과하여 회귀계수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4.5 ADHD 관련 초등교사의 지원요구사항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에는 ADHD학생을 경험한 초등교사들의 지원요청이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교사들의 의견들의 공통점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시하였다. 현재 초등학교에는 ADHD 학생들을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이나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고 한다. 특히 3월 학기 개학전인 2월달에 학교 차원에서의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Table 6>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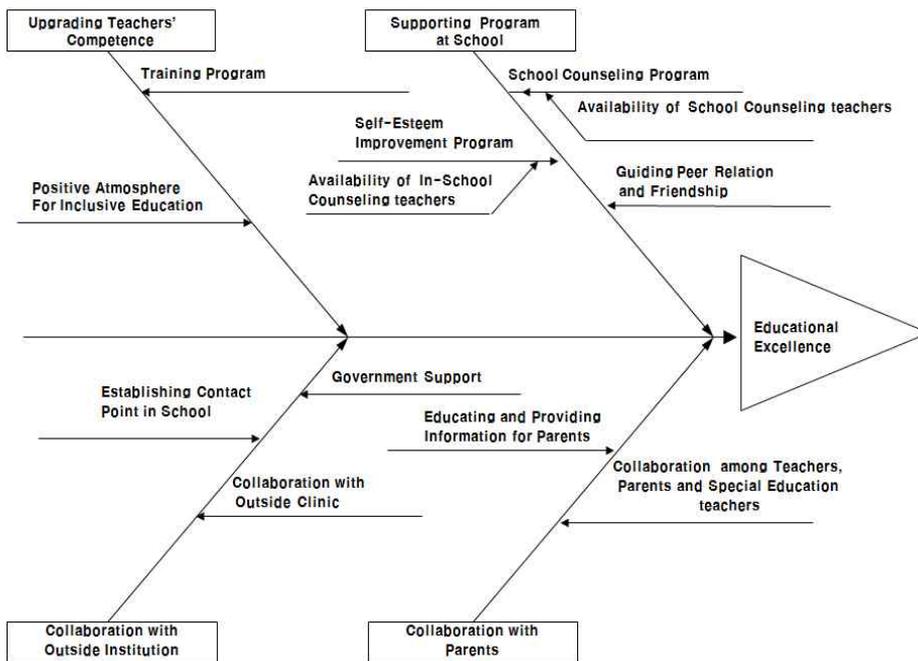
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Coefficients(t value, p value)					R square	F value (p value)
	Number of ADHD Children Experienced	Age	Gender	Career	Training Hours		
Knowledge Level	-0.12 (-1.404, 0.162)	0.074 (0.937, 0.350)	-0.252 (-1.751, 0.081)	0.006 (0.917, 0.360)	0.012 (4.760, 0.000)	14.3%	7.346 (0.000)
Attitude	0.005 (0.689, 0.492)	-0.66 (-1.062, 0.289)	-0.140 (-1.236, 0.218)	0.003 (0.546, 0.586)	0.003 (1.612, 0.108)	2.3%	1.038 (0.396)
Stress	0.010 (1.334, 0.183)	0.111 (1.532, 0.127)	0.456 (3.442, 0.001)	0.009 (1.431, 0.154)	-0.003 (-1.499, 135)	11.4%	5.678 (0.000)
Intention for Inclusive Education	0.001 (0.204, 0.839)	-0.069 (-1.263, 0.208)	-0.001 (-0.099, 0.993)	0.001 (2.99, 0.765)	0.004 (2.214, 0.128)	2.9%	1.333 (0.251)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새 학년에 올라가지 전에 사회성이 다소 결핍된 ADHD학생들을 위한 사회성, 행동규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새로운 학년에서의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업이나 상호작용 부족현상을 지적하였다. 많은 경우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입학 후에야 자신의 아이들이 ADHD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해본다고 한다. 조기발견이 중요한 ADHD아동들은 부모

님의 무관심으로 치료가 되지 못해 학교에 부적응 하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학부모님이 자신의 아이가 ADHD 증상으로 인한 행동장애의 문제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교사의 지식함양과 학습지도 역량 제고 측면에 관한 니즈를 토로하였다. 개인적으로 ADHD 아동을 경험했거나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을 빼고는 ADHD아동



들을 문제아동이라고 판단해 버리고 방치해 버리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교사들이 자기 반에 ADHD 아동들이 있을 때 이들 아동들이 어떤 특성을 지녔고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이들에 대해 효과적인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외부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 구축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전적으로 ADHD아동을 지도하기란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니다.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교사들의 부담감을 덜고, 적절한 치료방법 도입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차원에서 학교와 외부전문기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원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의견과 그에 따른 여러 세부적 의견들을 토대로 주요 요인들만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Fig. 1]과 같다. 정리방법은 피쉬본 차트를 이용하였다. 피쉬본 차트는 일본의 이시가와가 고안한 기법으로 일의 결과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간의 관계를 물고기뼈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계통적으로 정리하는 기법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ADHD 증상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교실현장에서의 통합교육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교사는 남교사에 비해 ADHD 증상학생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ADHD 관련 지식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직경력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식수준과 스트레스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요인은 교직경력이 일천한 집단이 제일 낮으며, 다른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D 학생경험, 연령, 성별, 교직경력, 연수시간 등의 5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분석에서는 지식수준을 종속변수로 도입한 모형에서 연수시간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ADHD 학생경험, 연령대, 성별, 경

력 등의 4개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성별만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교사들의 ADHD 관련 지식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분야의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 이수 외에는 교직경험이나 연륜 등 학교 안에서의 경력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13,14,15]를 참고하면 교사의 ADHD 학생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교실안팎에서의 학생 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학업수행능력은 물론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중재전략에 대한 학습과 정보공유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ADHD학생들의 적절한 교육과 치료는 우울증이나 중독, 또는 범죄에 빠질 우려가 크다. 그만큼 ADHD 학생은 현장교사들의 능동적인 역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25].

초등학교내의 교사들의 부담감을 줄여주고 ADHD 증상학생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 유도를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ADHD 증상학생에 대한 서비스 제공경로가 학교 내에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정착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과 함께 아동들이 하루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주요공간으로 ADH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적절한 교육이나 연수과정 및 경험을 통해 충분한 역량이 구축된 교사가 학교 내에 없는 경우 학교 밖의 외부상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채널이 요구된다. 둘째, 학교 내에 전문상담교사가 상주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ADHD 연수 교육과정 도입이 시급하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ADHD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ADHD 증상이 학업능력과 학교내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11]. 더구나 교사들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지식전달보다는 문제나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찾아내고 이해하며 적절히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한 실습과 사례 연구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학생들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과정과 전략을 습득하는 과정인 만큼 실무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ADHD학생을 위한 부모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ADHD 증상학생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일차적인 교육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모들에게 행동주의 학습 원리에 기초해 ADHD 증상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적절한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교육 프로그램을 교사 연구프로그램과 병행하여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지만, 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평생교육원 등에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교사 재교육 차원에서 지원정책을 고려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학교교육 현장별로 그리고 생애단계별로 ADHD 증상학생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과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할지를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Disease statistics, 2014. from <http://www.hira.or.kr>
-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ey Findings: Trends in the Parent-Report of Health Care Provider-Diagnosis and Medication Treatment for ADHD: United States, 2003-2011," 2013, Available from <http://www.cdc.gov/ncbddd/adhd/features/key-findings-adhd72013.html>
- [3] Wehmeier, P. M., Schacht, A., & Barkley, R. A., Social and emotional impair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DHD and the impact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 46, pp. 209-217, 2010.
- [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Data: Medication and Behavior Treatment," 2011, Available from <http://www.cdc.gov/ncbddd/adhd/data.html>.
- [5] Anderson, D. L., Susan, E. W., William, N., Knowledge of ADHD and attitudes toward teaching children with ADHD: the role of teaching experi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Vol. 49, No. 6, pp. 511 - 525, 2012.
- [6] ComedyDotCom News., High divorce rate for old and low-income husband. August 25, 2015, Available from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16002_2892.html.
- [7] Lee, Yeon Jeong & YounKyung Cho., An Analysi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Current Practices and Difficulties in Supporting Children with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0, No.3, pp. 5-19, 2013.
- [8] Hwang, Soon-Young., Difficulties To Early Identification For Preschooler With ADHD: Focused On Knowledge And Attitude Of ADHD Among Preschool Teachers.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10, No. 3 pp. 1-17, 2008.
- [9] Kang MinChae & Hyunju Park., Knowledge and 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garding ADHD.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16, No. 2, pp. 455-475, 2014.
- [10] Lee, Seohyun & Wanju Park., Effects of Relational Self and Negative Ideation of Teachers on Coping Type for School-aged ADHD.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5, No.2, pp. 89-100, 2016.
- [11] Jeong, Jongseong & Jinoh Choi., An Examination of Elementary Teachers' Knowledge of ADHD, Attitudes Toward Including Children with ADHD, and Use of Behavior Management Strategies. *Journal of Asia-Pacific Special Education*. Vol 11, No. 3, pp. 371-393, 2010.
- [12] Seo, WhaJa, EunHa Jeon, HyunJu Park., Knowledge and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ADHD.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 29, No.4, pp. 399-422, 2013.
- [13] Ohan, J.L., Cormier, N., Hepp, S.L., Visser, T.A. & Strain, M.C., Does knowledge about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impact teachers' reported behaviors and perception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Vol. 23, No. 3, pp. 436-449, 2008.
- [14] Westling, D.L., Teachers and challenging behavior: Knowledge, views, and practice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Vol. 31, pp. 48 - 63, 2010.
- [15] Martinussen, R., Tannock, R. Chaban, P., Teachers' Reported Use of Instructional and

Behavior Management Practices for Students with Behavior Problems: Relationship to Role and Level of Training in ADHD, *Child Youth Care Forum*, Vol. 40, pp. 193 - 210, 2011.

[16] Yoo, Il Young, Jinsuk Ra, Euigeum Oh, Minjeong Kim. Knowledge and Attitude to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 in Korean Preschool Teacher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15, No. 4, pp. 384-391, 2009.

[1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2004.

[18] Choi, Soo-Chan, Ji-Sun Lee, Se-Yeon Sim, Ji-Hye Lee, Ji-Hye Park,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on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7. No. 1, pp. 1-9, 2017.

[19] Ha, Jeong-Hee, Jong-Man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Level and Teaching Efficacy : Focused on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15. No. 2, pp. 393-403, 2017.

[20] Nowacek, J. & Mamlin, N., General education teachers and students with adhd: what modifications are made? *Preventing School Failure*, Vol. 51, pp. 28-35. 2007

[21] Ohan, J.L., Visser, T.A.W., Strain, M.C. and Allen, L., Teachers' and Education Students' Perceptions of and Reactions to Children with and without the Diagnostic label 'ADHD'.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49, No. 1, pp. 81 - 105, 2011.

[22] Han, Jin-Ah, Mi-Jin Kim, "The Convergence Study of Interpersonal Caring Behaviors on Anger,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in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87-98, 2016.

[23] Park, Mi-Sook,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Ego-Resilience, Perceived Stress, and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73-81, 2017.

[24] Lee, Eun-Kyung, Jin-Hwa Park, "Converged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Occupational Stress in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15-24, 2016.

[25] Choi, Yeon-Sook, "The Role and Current Status of ADHD information-Sharing Websites for School Teach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 145-154, 2014.

최연숙(Choi, Yeon Sook)



- 2005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09년 2월 :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특수교육학 석사)
- 2013년 8월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특수교육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배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평생교육복지, ADHD, 장애인 성교육
- E-Mail : white9879@hanmail.net